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 장애 50년의 역사 상기

(사)실로암사람들, 광주 장애인 공동체 기록 조망 전시 2일까지 진행·공연은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장애인 당사자들 삶 더 존중되는 사회되도록 노력”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 이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립했던 (사)실로암사람들, 이들이 생명(선교), 풍성(인권), 사랑(복지)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내세워 활동을 펼쳐온 지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사)실로암사람들(대표 김용목 목사)은 1976년 7월 15일에 창립된 이후 출근 한국의 장애인 선교와 인권 및 복지를 선도해 가는 단체를 표방하며 장애인 선교를 비롯해 장애여성과 가족지원, 자립생활 역량강화, 참여와 평등을 위한 연대, 장애인 문화체육 증진, 지역사회증진 서비스 및 회원 조직화, 탈시설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탈시설 자립장애인 자원주거형주택 우리집 등의 주요사업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이런 가운데 (사)실로암사람들은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아래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976년 이후 50년 동안 이어져 온 광주 장애인 공동체의 기록과 사람들의 삶을 한자리에 담은 전시와 공연을 마련했다.

‘장애 프라이드, 세상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지난 29일 개막, 오는 2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1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씨앗을 심다’(1976~1991), ‘뿌리가 내려다’(1992~2004), ‘가지가 뻗다’(2005~2012), ‘숲을 이루다’(2013~현재) 등 4개 시기로 나눠 구성됐다.

각 시기에는 손으로 쓴 사진 그림, 사진과 피켓, 액자와 동양자수 병풍, 생활 공예 등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담긴 자료가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권리·연대 관련 자료를 선보이고, 소식지와 책을 펼쳐 보는 열람 공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어 ‘시대를 담은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릴 공연은 1일 오후 7시 2층 공연장에서



김용목 목사



(사)실로암사람들은 1976년 창립된 이후 출근 50년 동안 이어져 온 광주 장애인 공동체의 기록과 사람들의 삶을 한자리에 담은 전시와 공연을 마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갖는다. 사진은 1층 전시장에 마련된 활동장면을 담은 각종 사진과 행사 포스터 등을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들.

열린다.

공연은 지난 50년간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바꾼 온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무대로, 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자립’의 이야기를 비롯해 버스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이동권’의 이야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맞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킨 사람들의 연대와 그 아픔을 딛고 장애인 자립 공간 ‘카페홀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등을 담았다.

여기다 보호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과 삶을 빼앗겼던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을 통해, 장애인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이야기한다.

출연진은 오프닝에서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씨의 연주로 무대를 열고, 이어지는 연극에는 장애인배우(김지향, 배영준, 박대왕, 정지혜)와 극단 파인트리, 실로암수여중창단이 함께 무대를 만든다. 입장료는 무료.

이와함께 (사)실로암사람들에서 주최하는 ‘하나된소리’는 1990년 2월에 시작해 34회까지 진행했으며,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문화

로 표현하는 공연을 진행해 왔다.

시위현장에 출타 중인 김용목 목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그동안 광주에 장애인들, 걸어왔던 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향유 좀더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더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장애인들의 삶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운동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모든 기록들이 잘 보존되지 않았지만 좋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실로암사람들이 늘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낮은 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더 낮은 곳, 배제되고 소외되며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총장로가 거대한 공연장으로... 세계 버스커 ‘음악 대결’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7~11일 총장로 일원서 5개국 8개팀 경합...스트릿댄스·먹거리·스탬프투어

전 세계 거리음악가들이 광주 도심에 모여 음악으로 승부를 가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광주특별시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총장로 일원에서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을 갖는다.

올해 광주버스킹월드컵에는 56개국 535팀, 1549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제4회 대회보다 참가국은 14개국, 참가팀은 42개 팀 늘어나며 국제 음악축제 규모와 위상을 키웠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팀은 대한민국, 멕시코, 일본, 프랑스, 호주 등 5개국 8개 팀이다.

국내에서는 부에 나 모 멘토, Hoombamba(유하은), 콰아켄츠, 슬로우진이 출전한다. 해외에서는 멕시코 BuenRostro, 일본 sucola, 프랑스 Valerie Ekoume, 호주 SAJJE가 광주를 찾아 세계 거리음악가들과 경쟁한다.

본선 8강은 10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며, 최종 결선은 11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올해 대회는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정체인 ‘추억’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본선 진출팀들은 경연곡 가운데 최소 한 곡을 자신의 추억이 담긴 노래로 선정해 각자의 음악적 색깔로 재해석한다.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이 자신만의 음악으로 ‘추억’을 표현하며 총장축제와 버스킹월드컵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최종 수상자는 전문 심사위원 평가 70%와 시민 심사위원 평가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 30명이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심사에 참여한다.

올해 광주버스킹월드컵은 경연을 넘어 총장로 전체를 하나의 거리공연장으로 확장한다. 축제 기간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총장로우체국 등 총장로 일대 곳곳에서 ‘버스킹 프린지’가 펼쳐진다.

재즈, 록, 포크, 인디팝, 클래식, ED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비롯해 마술, 마인, 서커스, 저글링 등 난버벌 공연도 만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버스킹과 스트릿댄스가 마련돼 도심 속 음악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제4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시민심사위원들이 버스킹월드컵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대를 감상하며 심사를 하고 있다.

날짜별로는 7일 테타너스 초청공연과 버스킹 프린지를 시작으로 8일 외국인 버스킹, 9일 스트릿댄스, 10일 버스킹월드컵 본선 8강, 11일 결선과 시상식 및 초청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11일 결선 무대에는 ‘포장마차’, ‘취하고 싶다’ 등으로 사랑받은 감성 발라드 황인욱과 제4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수상팀인 록밴드 크래쉬가 초청돼 대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관람객들이 공연과 먹거리를 함께 즐기며 축제 현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5·18민주광장에는 푸드트럭이, ACC 하늘마당에는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 등이 참여하는 맛집 팝업이 각각 준비될 예정이다.

이외에 축제장에서 총장로 골목으로 발걸음을 이을 ‘버스킹 스탬프투어’가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5·18민주광장과 ACC 하늘마당에서 공연을 즐긴 뒤 예술거리 은암미술관, K-POP스타거리, 총장로우체국, 시소총장 등 총장로 곳곳을 찾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공연 관람을 도신 관광과 연결해 총장로

곳곳에 머무르고 걷는 경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임팩 동구정장은 “광주버스킹월드컵은 해를 더해가며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글로벌 음악축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연을 넘어 거리공연과 미식, 총장로의 다양한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시민과 관람객들이 광주에서 음악과 함께 특별한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버려지던 포스터를 모아 쇼파백으로 제작하고, 문화상품점 들락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쓸모 다한 포스터, 쇼파백 재탄생 ACC 재단, 들락 고객 무료 증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행사가 끝난 뒤 쓸모를 다한 포스터들이 쇼파백으로 다시 태어난다.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에 따르면 폐포스터를 활용한 ‘들락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ACC 내 행사 후 버려지던 포스터를 모아 쇼파백으로 제작하고, 문화상품점 들락(DLAC)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쇼파백 제작 전 과정은 광주지역 장애인 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과 협력해 자원순환과 상생의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는 취지다. 전당재단은 매장 곳곳에 ‘한 장의 포스터가 새로운 쓰임을 갖는 순간, 자원순환에 함께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비치해 방문객들의 친환경 실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식 온라인 숲의 포장·배송 체계도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기존 비닐 완충재와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소재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생 종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에서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상품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늘려 지속가능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문화상품점 ‘들락’이 포장재부터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상품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기록 너머 인문학... 사진 200년 발자취 ‘한눈에’

동구인문학당 ‘사진 도서전’ 2일~12월까지

1826년 최초의 사진이 탄생한 이후 200년 동안 사진은 시대를 기록하고 기억을 남기는 가장 익숙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사진 발명 200주년을 맞아 사진이 걸어온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책과 카메라로 살펴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인문학당에서 특별기획전 ‘사진 도서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동구 인문학당이 선보이는 열다섯 번째 책 주제 전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매개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친숙하게 소개해 온 인문학당은 올해 1826년 최초의 사진이 탄생한 이후

2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진의 역사와 의미를 도서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전시에는 사진 관련 도서 100여 권이 마련된다. 국내외 유명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비롯해 사진 관련 이론서, 사진집 시리즈인 ‘눈빛사진작가선’과 ‘열화당사진문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시대에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나 표현 수단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자 인문학적 시



위중한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과 협업해 시대별 카메라 2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사진 탄생의 토대가 된 ‘카메라 옵스큐라’를 비롯해 박스형 몸체에 벨로우즈를

장착한 목재 카메라, 한 장의 필름에 6장의 사진을 차례로 촬영할 수 있는 1880년대 카메라, 은밀한 촬영을 위해 제작된 1890년대 탐정 카메라, 구소련에서 제작된 1950년대 대형 뷰카메라 등이 전시된다.

개막일인 2일 오후 2시에는 이수환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장이 ‘사진의 비밀과 입체 사진 촬영 체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전시된 카메라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입체 사진 촬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